



고현정·김남주·채시라(사진 왼쪽부터)

“우린 여전히 전성기”

고현정·김남주·채시라 퀸들의 귀환

드라마 '이별이 떠났다'의 공룡점은 뭐냐.

바로 고현정·김남주·채시라 등 여성 배우가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20년 넘는 연기 경력을 가진 40대 후반~50대 초반 배우로 90년대 스타배우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귀환은 연예계 고정관념을 깨고 있어 의미있다. 그동안 남성 배우들이 나이가 들수록 연기할 수 있는 배역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진 것과 달리 여성 배우들은 한 살 더 먹을수록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러왔다.

남성 캐릭터 위주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 의미있는 여성 캐릭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적었던 과거 업계 분위기도 이런 경향에 한몫했다.

하지만 21세기 골드미스트 등 파워 여성들이 등장하면서 드라마도 변하기 시작했다. 능동적인 여성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전 같으면 전성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평가받던 중년 여성 배우들이 그 배역을 당당히 꿰차는 건 물론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스타배우'였던 이들의 귀환은 변치 않는 미모와 함께 연기력까지 탑재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고 있다.

올해 새롭게 안방극장에서 활약하는 고현정·김남주·채시라가 틀어쥔 연극대상만 6개다.

고현정은 2009년(MBC)과 2010년(SBS), 김남주는 2010년(MBC)과 2012년(KBS), 채시라는 1994년(MBC)과 1999년(KBS) 각각 두 차례씩 대상을 쏜 안았다.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들다는 연기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는 건 이들이 배우로서 얼마나 뛰어난 활동을 해왔는지 알게 한다. 물론 상이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지만 연기력만으로 시청자를 TV 앞에 앉힐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고현정은 스티븐 드라마 '리턴'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변호사 역을 맡아 올해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이끌어내고 있다(16.0%).

그 중심에는 안정적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고현정의 카리스마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주 첫 방송된 김남주의 '미스티'도 종합편성채널 드라마로는 이례적으로 2회 만에 시청률 5%를 넘겼다. 김남주는 6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한 열연을 펼치며 역시 김남주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

오는 5월 방송 예정인 작품 '이별이 떠났다'는 채시라가 출연한다는 것만으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작품 보는 눈이 좋다는 것도 이들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세 배우 모두 다작(多作)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다.

고현정은 2~3년에 한 번 골드 라미에 출연 중이고 김남주는 2010년대 들어 단 세 작품에 출연했을 뿐이다. 채시라의 마지막 작품 또한 2015년 방송된 '착하지 않은 여자'이다.

작품성은 물론 흥행성과 캐릭터의 매력까지 갖춘 작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택하다보니 작품 수는 많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출연작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배우들이지만,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종종 크게 헛발질을 하는 다른 배우들과 비교하면 안목이 뛰어나다는 게 업계 평가다.

이들이 가장 최근 선택한 작품을 보면 경향을 알 수 있다.

도구적으로 쓰이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극을 이끄는 캐릭터를 맡아 연기했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다.

'고현정이 '리턴'에서 맡은 최자혜는 밀바에서 시작해 최고 변호사 자리에 오른 인물이며, 극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캐릭터다.

'미스티'에서 김남주가 맡은 '고해란' 또한 자신에게 닮은 위기를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인물이고, 채시라가 '이별이 떠났다'에서 맡은 엄마 역할 또한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만 하는 엄마가 아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캐릭터다.

신진별 문화평론가는 이와 관련, "세 배우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고, 어떤 연기를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의 행보는 젊은 여성 배우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평론가는 그러면서 "우리천장을 깨는 여성 배우들이 더 나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 개인의 역량을 넘어 좀더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가진 작품 제작이 선행돼야 하는 건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손흥민, 영국프로축구선수협 팬 선정 '1월의 선수' 상 영예

손흥민(토트넘)이 영국프로축구선수협회(PFA) 팬들이 선정한 1월의 선수가 됐다.

PFA는 6일(한국시간) 손흥민이 1월의 선수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득표를 23%를 올리며 18%에 그친 세르히오 아케로(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생애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손흥민은 1월 리그 4경기에 나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출장한 경기에서 토트넘(승점 49)은 3승 1무의 성적을 거두면



서 4위 리버풀(승점 51)과 승차를 2점 차로 줄였다.

한편 이 상은 영국프로축구선수협 팬들이 프리미어리그부터 4부리그까지 소속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아 선정한다.

1월에는 손흥민과 아구에로를 비롯해 예당 아자르(17%·첼시), 마르코 아르나우로비치(17%·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트로이 시네(14%·맨체스터 시티), 카스퍼 슈마이켈(11%·레스터 시티) 등이 후보에 올랐다.

/뉴시스

CNN "이방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의 한 관리자는 5일(현지시간) 이방카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방카 선임고문은 또 미국 선수단의 스포츠 경기 일부를 관람할 예정이며, 대통령 대표단 구성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수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이 관리자는 전했다.

이방카 선임고문은 지난달 30일 트위터에 "다가오는 동계 올림픽 준비! #Olympics2018 #TeamUSA"라고 올리기도 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여성 문제 등을 비롯해 오는 2028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을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하계올림픽이 미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1996년 애틀랜타 이후 처음이다.

/뉴시스



성남FC, 미드필더 무랄라 영입

지난 시즌 프로축구 K리그 1(클래식) 포항 스틸러스에서 활약한 무랄라가 K리그 2(웰리전) 성남FC에 새 풍자를 뿜었다.

성남은 미드필더 무랄라를 영입, 전력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브라질 출신 무랄라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2016년 포항 소속으로 K리그에 데뷔했다.

2시즌 동안 53경기 1득점 2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강력한 에너지

앞세운 전방 압박 능력이 뛰어나며 저물적인 태클과 활동량 역시 강점이다.

무랄라는 "한국에서 다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성남에 승격이라는 큰 선물을 안기고 싶다"고 전했다.

성남은 기존의 오르슬리치와 함께 리그에서 검증받은 에델과 무랄라 영입을 완료하면서 2018년 시즌을 준비한다.

/뉴시스

최부경, 부상 이종현 대체 국가대표 농구팀 합류

허재 감독이 이끄는 남자농구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대한민국농구협회는 2019 FIBA 농구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대회 1차 라운드에 참가하는 대표팀이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을 당한 이종현(현대모비스) 대신 최부경(SK)을 대체선수로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종현은 지난 4일 울산 홈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전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었고 6일 수술을 받는다.

특별 귀화가 허가된 리카르도 라틀리프(삼성)도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라틀리프는 개명(라건아) 절차를 매듭짓지 못한 라틀리프라는 이름으로 출전한다.

한편 농구대표팀은 23일 홍콩 28일 뉴질랜드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월드컵 지역예선 2연전을 치른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